

# “맑고 소박한 스님 이미지 신뢰 줘 광고효과 높다”

## 불교소재 CF 대폭 늘었다



◇통화연결을 듣고 있는 김길호씨를 스님 모델로 출연시킨 '컬러링' CF(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CF.

“앗, 스님들이 방송CF에...” 요즘 TV를 켜면 방송 CF에 스님들이 곧잘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핸드폰 통화연결을 걸러링, 우체국 예금보험, 청호 나이스, 남양 불가리스... 등. 모바일, 식품, 정수기, 우체국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속세와 단절된 맑고 깨끗한 스님들의 이미지가 광고에 활용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광고주들의 스님 모델 모시기 주문이 늘고 있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중 지난해 12월부터 등장한 핸드폰 통화연결을 회사의 '징글벨'과 '왜블러'는 재미있는 컨셉으로 소비자들에게 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편인 '징글벨'에서는 산사의 대웅전 옆에 노 스님으로 분한 텔런트 김길호씨가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걸자 평범한 통화음 대신 크리스마스 캐럴인 '징글벨'이 울려 퍼진

산사의 노 스님을 모델로 해 상반된 이미지를 부각시켜, 스님들까지 컬러링(통화연결음)을 사용한다는 광고효과를 노렸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뜬 성우 김현의 작사가 마지막으로 출연한 청호 나이스 '산사편'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사의 새벽, 두 스님이 차(茶)를 음미하고 있다. 차를 우려러

비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청호 정수기가 웅담샘물보다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깨끗한 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생각이 청호의 경쟁상대라는 점을 은연중 인식시켰다. 이번 CF는 해남 다산초당에서 촬영했는데 새벽 공기를 화면에 보여주기

## 제작진 “소비자에 어필... 매력있는 모델”

다. 흥겨운 음악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댈실릴릴 춘 노스님은 신기한 듯 강당에 여러 스님을 모이게 해 놓고 젊은 상좌에게 통화연결을 사용법을 스님들과 함께 배운다는 내용이다. 2편에서는 '징글벨' 음악대신 송창식의 '왜블러'를 사용했다. 광고제작사인 Zoo Pro 에서 만든 이 광고는 핸드폰과 전혀 거리가 멀 것만 같은

는 순간 물이 떨어진다. 노 스님으로 분한 김현직씨가 온화한 미소로 밖에서 즐기고 있던 동자승에게 물 심부름을 시킨다. 이때 동자승이 물 뜨러간 곳은 웅담샘이 아니라 청호나이스 정수기다. 산사의 웅담샘처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암시를 시청자들에게 준다. 어린시절 산사에서 웅담샘물을 손바닥으로 받아먹던 소

위해 스태프들이 새벽 4시부터 준비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특히 이번 CF에 등장하는 세명의 연기자 모두는 콘티에 매료돼 사흘을 자처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도 노스님과 동자승, 수녀를 모델로 내세운 우체국 예금보험 CF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다. '동자승' 편은 화가 지망생인 동자승이 법당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주지 스님은 동자승을 꾸짖는 대신 크레파스를 건네주며 동자승의 꿈을 키워준다는 내용이다.

우정사업본부 이재태 금융기획과장은 “친근하고 따뜻한 우체국의 이미지를 표현하려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동자승의 소박한 꿈과 이를 도와주는 노스님의 넉넉한 마음을 통해 꿈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장은 “금융권 광고는 상품광고가 아니라 이미지 광고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광고의 차별성이 타 광고보다 약해 스님을 모델로 등장시켜 차별성을 가지도록 묘안을 짜낸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도 불교화장실인 해우소를 등장시키며, 큰 스님도 변비해소에 불가리스를 즐겨 먹는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히트했다. 방송 CF에 스님들을 모델로 기용하는 현상에 대해 광고제작사 Zoo Pro 김종원 감독은 “4년전부터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원성스님이나 SK텔레콤의 청안 스님 등 실제 스님 모델을 기용해 광고주들이 재미를 본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까지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되는 식품이나, 물 등의 한정된 광고에만 사용되지만 스님은 분명 광고 제작진들에게 매력있는 광고모델”이라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영화 '동승' 인기폭발...연일 매진

### 베를린영화제를 다녀와서...

### 주경중감독 특별기고



◇무대에서 인사하고 있는 필자(왼쪽)와 도념역의 김태진 군.

영화 '동승'은 이번 제 53회 베를린영화제 중 비경쟁부문인 킨더 필름 페스트(아동영화제)에서 상영돼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베를린 주 팔라스트(Zoo Palast) 극장에서 10·11·16일 세차례에 걸쳐 상영된 '동승'이 연일 일일소식지(일간지)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

1회당 입장한 총 1천여명의 관람객중 40%정도는 동자승 도념역에 출연한 김태진(14·덕원중 1년)과 같은 개구쟁이 아이들이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수준은 성인 못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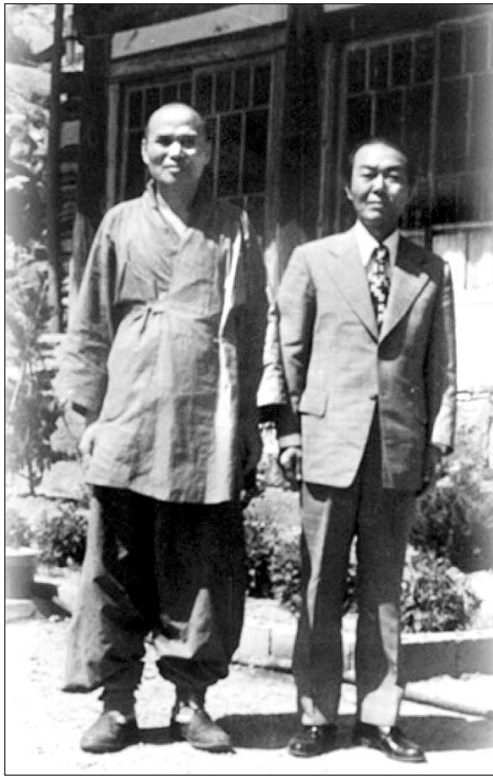
았다. 동자승이 어머니를 간절하게 부를 때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드러날 때 등에서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시사회가 끝난 뒤 같은 극장에서 열린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어린이 심사위원단을 포함 한 100여명에 이르는 관객들이 참석해 30여분간 질문을 쏟아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가장 많은 질문세계를 받은 사람은 영화속 복장인 승복을 입고 나타난 아역배우 김태진군(13·덕원중 1년). '실제로 스님인지', '연기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나이는 몇 살인지' '이번 작품에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사용했나' 등의 수준급 질문이 이어졌다.

김군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재미있었다”고 영화를 촬영한 소감을 밝혔으며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을 묻는 질문에 “동네 아이들과 싸우는 장면”이라고 답해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베를린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지난 20여차례의 해외영화제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영화란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간의 정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매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4월 11일 전국 1백개 스크린을 통해 국내에 개봉될 영화 '동승'의 해외나들이는 올해에도 10여차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티뷰론(3월), 파리(4월), 싱가포르(9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과 함께 찍은 미당 서정주 사진.

故 미당(未堂) 서정주 시인(1915~2000)의 유품 3백여점이 다음달 28일까지 공개된다. 동국대 중앙도

## ‘미당’ 유품전 3월28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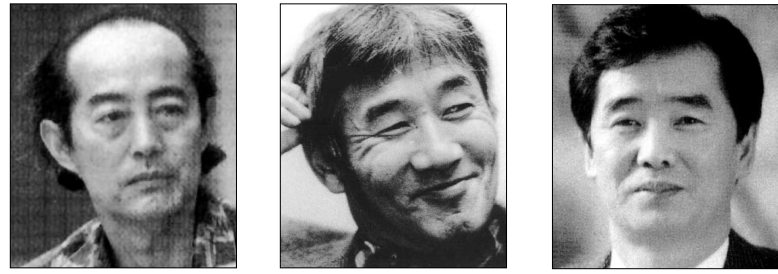
### 동국대 도서관 신축기념...300점 공개

서관에서 도서관 신축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리게 될 전시회 제목은 '연꽃 만다لو 가는 바람 같이'. 미당의 시에서 따왔다.

이번 전시품들은 2001년 4월 유족들이 동국대에 기증한 1만2000여점의 유품중 일부로 미당이 50여년간 간직해 온 10권의 시창작 노트와 영문학·프랑스문학 공부 과정이 담긴 노트, 출판되지 않은 노자의 <도덕경> 번역 초고, 평소 독송하던 <능엄경>, 성철스님과 찍은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작시 '제야(除夜)', '꽃갑 이야기', '나의 길', '도

로아미타불' 등 4편은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미당의 제자인 윤재웅 교수(동국대 국어교육학과)는 “미당의 미발표 시는 100여편에 이르며 계속해서 유작정리작업을 해왔다”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시는 유작 노트 10권중 8, 9권에 실려 있는 것으로 93년 1월~94년 10월 사이에 창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60년대부터 모아둔 각종 가계부와 영수증을 대하면 미당의 일상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다. 특히 이번 공개 유품들중에는 미당의 손때가 묻은 목탁과 염주도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동국대 홍보실 김영민씨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미당 관련 저작들도 수집 정리해 미당연구 전자도서관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기자



◇시인 정희성씨 ◇소설가 최인호씨 ◇문학평론가 조남현씨

##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발표

시 정희성씨  
소설 최인호씨  
평론 조남현씨

대한불교조계종 제 8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정희성 시인, 소설 부문에 최인호 소설가, 평론 부문에 조남현 문학평론가(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197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한 정희성씨는 지난해에 발표한 <늙은 리사관>과 <그가 안경 너머로 나를 쓰고 있다> 등의 시를 통해 생명에 대한 선(禪)적 직관들을 자연스럽게 평범한 시어로 작품속에 펼쳐낸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

다. 또 중견 소설가인 최인호씨는 경허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 <길 없는 길>에서 불교의 구도자적 세계를 세밀하게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조남현 교수는 평론 <한국 현대문학사상 탐구>와 <비평의 자리>를 동시에 간행해 한국문학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상식은 4월 26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BS 불교방송</b>	<b>불교텔레비전 &lt;ch 32&gt;</b>
08:30 라디오 열린마당	26일 6시 30분 금강경 독송
11:10 행복스튜디오	27일 12시 10분 정경 스님의 참선요가
황청원입니다	28일 9시 30분 구본일의 명상태고 명상음악
14:45 고승열전	3월 1일 12시 30분 해동 용궁사 법회
22:05 영화음악실	2월 16시 10분 간다라 불교와 한국의 미래
23:25 지혜의 샘터	3월 20시 30분 생활간강백과 오행생식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참여정부 출범 보도특집 '재벌개혁, 경제정의 실현의 대인인가' (26일 08:05분) - 참여정부 출범에 즈음해 기획된 특집 프로그램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할 재벌개혁의 본질을 전문가들의 대답을 통해 점검해본다
- 불교텔레비전: △간다라불교와 한국의 미래 '법성포, 부유부에 대해서' (3월 2일 16:10) -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사업'이 한창인 전남 영광 법성포. 이곳에 만들어진 부유부의 간다라 불상부조를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되짚어 보고, 침류왕 때인 384년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의 고창 간다라의 불교유적을 살펴본다. 진행은 민희시 한양대 교수.

#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972년 교계 최초로 설립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현대화·대중화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법사를 양성하는 최고의 불교대학

- 교계최초 전임교수제 채택 ⇒ 일관된 교육성과
- 철저한 학사관리 ⇒ 성숙한 불교지도자 양성구원
- 아낌없는 교육투자 ⇒ 저렴한 교육비 및 장학혜택
-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교과과정 (연간 24과목 240강의)

★ 어렵게 발심한 불교공부 딱저 보고합시다. 어디에서? 30년 전통의 대원불교대학에서! ★

○ 교과과목 및 강의 안내(본 교과과정은 1년제입니다)

담당교수	강의전개 내용 (연간 24과목 240강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최봉수교수 (동국대 교수)	부처님 초기경전 및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등의 대승 경전을 통한 불교교리의 근본이해를 돕는다	초기불교의 이해	초기대승불교	초기불교원전강독	초기대승 불전강독
여경구교수 (동국대교수)	부처님 열반 후 논의 되는 부파불교, 중관, 유식등의 교학적 이해와 불교의 중국전래로 형성되는 천태, 화엄, 선, 경토의 사상을 집중탐구한다.	부파불교의 이해	중기대승불교사상	후기대승불교사상	중국불교 교학사상
김중욱교수 (동국대교수)	불교사상과 타종교 및 서양철학등을 대비시켜 본교가 지닌 현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불교특유의 우주론, 시간론과 인간론을 고찰하며, 불교에 담긴, 인신론적, 심리학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불교와 기독교	불교와 철학	불교존재론	불교의식론
고영섭교수 (동국대교수)	불교가 각지역의 중요한 문화와 어떻게 조화되어 거대한 사상문명을 형성해 왔는지 정치, 교육, 사회, 경제 등 각종 사건의 입장에서 짚어내 분석한다.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일본, 동남아 불교사
마일운 스님 (주요명문화재 500명교수)	마일운 스님으로부터 불교전통의식을 실수한다.	불교전통의식실수		불교전통의식실수	
김범준법사(대원회)	전통불교의식을 보다 대중적인 한글로 표현하여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한다.		우리말 의식실수		우리말 의식실수

○ 모집과정 및 전형

모집과정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법사과정 정규과정 교양과정	출강 00명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시는가 - 대중불교지도자가 되실 보유자	- 입학원서 (소장양식) 1부 - 사진 3매 - 개별통지
인터넷	사이버 과정 00명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3년 3월 2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수시모집
- 강의시간: 주 3일 출석 (주간) 오전 11시 ~ 오후 3시 (화, 목, 금)  
불교전통의식실수(마일운스님): 금요일 오후 6시 40분
- 개강일시: 2003년 3월 4일 오전 11시 ○ 입 학 식: 2003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 특전사항: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법사고시 합격자), 포교당 종교법인보호, 동국대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문의처: 본대학교무과 (02) 754-1613, 773-9171  
FAX (02) 756-7258  
홈페이지 주소: WWW. idaewon. or. kr  
주 소: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 大圓佛敎大學

대원불교대학 전경